

성마리아국제의료센터 완공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조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데 요시오 토마스 아퀴나스
사회의료법인 눈(雪)의 성모회 성마리아병원 이사장

† 주님의 평화

주님의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 한해도 주님의 큰 은혜 아래,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의 활동과 회원기관분들께 하느님의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작년 12월 8일(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 ‘눈(雪)의 성모회’ 창립 60주년 기념식과 약 2년 4개월간에 걸쳐 완공된 ‘성마리아국제의료센터’의 미사 및 축복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당일 미사 및 축복식에는 저희 법인이 소속된 후쿠오카교구의 미야하라 료지 주교님과 후쿠오카교구의 신부님들과 수도원 관계자, 일본가톨릭 의료시설협회 등의 의료관계자, 후쿠오카교구 내 가톨릭계 고등학교 교육관계자 및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한국측에서는 한국천주교 군중교구장 유수일 주교님(보건사목 담당)과 한국가톨릭의료협회장 천명훈 교수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 또한 저희 법인 및 성마리아학원대학교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부산가톨릭대학교에서 윤경철 총장신부님 외 관계자분들께서 참석해주셨고, 저희 법인과 관련법인 임직원들도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미사는 후쿠오카교구 미야하라 료지 주교님과 한는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축복식에는 한국가톨릭의료협회에서 ‘눈의 성모회’ 창립 60주년 및 ‘성마리아국제의료센터’ 완공을 기념하여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의 최봉자 레지나 수녀님께 제작, 의뢰하여 기증해 주신 ‘눈의 성모상’에 대한 축성을 한·일 양국 주교님께서 해주셨고 이어서 ‘성마리아국제의료센터’의 축성이 있었습니다.

초청에 응해주신 분들 그리고 부득이하게 참석 못하셨던 분들께는 기념품으로 미사 및 축복식 관련 자료와 ‘눈의 성모상’의 미니어처를 드렸는데, 전해 받은 시설에서 성당 등에 성모상을 설치해 놓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일가톨릭의료기술협력협정으로 인한 한국가톨릭의료협회와 25년간 길러온 성과의 하나가 일본 가톨릭 관계자에게 강한 인상과 희망을 주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성마리아국제의료센터’는 준공 미사 및 축복식을 마치고 최종 조정을 하여 연말에 기존 병동에서 입원환자 약 650명을 이동시키며, 2013년 1월 1일부터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마리아국제의료센터’는 약 5년전부터 본격적인 공사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본 법인의 가톨릭



'성마리아국제의료센터' 외관 모습



'눈의성모상' - 성마리아병원 정면 현관 앞에 설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조직 운영에 대해 논의하며, 병원 건축 등의 하드웨어 설계, 병원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설계의 수정 및 변경, 개혁을 실행해 오는 가운데, 다방면으로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의 관계자분들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받아 무사히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계획을 검토하는데 많은 조언을 주셨던 '서울성모병원'의 건축 계획, 건축 공사 및 완공 후의 운영은 저희가 계획을 확정하고 실행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 공사 기간 중 일본은 역사상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 원자력발전소의 폭발과 방사능 오염이 발생하는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건축 공사도 일시적 중단과 연기가 불가피했으나, 한국가톨릭의료협회 여러분들의 기도와 지원 그리고 협력에 힘입어, 1차적으로 지진 피해 지역의 복구를 위한 직원들의 장기파견으로 위기극복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관계기관들로부터 건축 공사에 협력과 지원을 한층 더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직원들의 단결력 또한 강화되어 현재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일본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본 법인의

성마리아병원이 위치한 지역에서도 위와 같은 현상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변화를 예상하기 힘든 젊은 층의 대도시를 선호하는 성향은 의료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대도시에 위치한 의료기관에 취업하기를 희망함으로써 일본 내에서도 의료인의 지역적 편재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사회보장제도의 문제는 정치적 문제로 부각되었으나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일본의 정치, 경제 속에서 또한 본 법인이 속해있는 지역 안에서 가톨릭이념에 따른 의료활동을 해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의 지원과 협조,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월 1일
주님께 감사

聖マリア国際医療センター竣工
皆様方のお祈りとご協力で深く感謝申し上げます。

2013年1月1日
社会医療法人 雪の聖母会
聖マリア病院
理事長 井手 義雄

主の平安

主のご降誕と新年を迎え心よりお祝い申し上げます。今年も神様の豊かなお恵みの中で、韓国カトリック医療協会の活動と会員の皆様方に神様の祝福をお祈り申し上げます。

さて、当法人は昨年12月8日（無原罪の聖マリアの祭日）に、当法人「雪の聖母会」創立60周年記念と約2年4ヶ月間の工期で建築を行って、「聖マリア国際医療センター」竣工のミサ及び祝福式を無事に終了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当日のミサ及び祝福式ですが、日本側は当法人が所属する福岡教区宮原良治司教様及び福岡教区の司祭、神父様、福岡教区内の修道院の関係者、日本カトリック医療施設協会等医療関係者、福岡教区内のカトリック系高等学校等教育関係者、及び児童施設関係者、韓国側は、韓国軍属区劉修一司教様及び韓国カトリック医療協会会長千命薫教授他関係者の方々、また当法人及び当法人関連の聖マリア学院大学と技術協定を締結している釜山カトリック大学校尹景哲総長他関係者及び当法人及び当法人関連の法人役員、職員により執り行われました。

ミサ及び祝福式は、福岡教区の宮原良治司教、韓国軍属区劉修一司教の共同のもと、13名の日韓の司祭、神父様の司式により日本語と韓国語で行われました。祝福式ですが、韓国カトリック医療協会より当法人「雪の聖母会」創立60周年及び今回の「聖マリア国際医療センター」竣工を記念して寄贈頂きました「永遠の助け聖母修道会」のSr・レジナ（チェボンジャ）制作「雪の聖母」像の日韓の両司教による祝福、「聖マリア国際医療センター」の祝福が引き続き行われました。

ミサは、日韓の司教様と司祭、神父様方の13名、そして日韓の多くの修道女の方々や信徒の方々により荘厳、かつ厳粛に行われました。特に、低迷する日本のカトリックの関係者の方々より、このミサの参列により大きな励みと希望を与えて頂いたとの感謝の言葉、御礼の言葉を頂いています。ご招待し参列された方々、また参列が不可能な方々には、記念品としてミサ、祝福式関係の資料及び「雪の聖母」のレプリカを手渡しや送付を致しておりますが、各施設の聖堂、チャペル等に設置致した旨のお手紙が多数送付されてきております。日韓カトリック医療技術協力協定による貴協会との25周年の成果の一つが、日本のカトリック関係者に強い衝撃と希望を与えたことを確信できるかと思えます。

ところで、「聖マリア国際医療センター」ですが、竣工のミサ、祝福式後に最終の調整を行い、年末に既存病棟より約650名の入院中の患者様の移動を完了し、本年1月1日より診療を開始しています。

「聖マリア国際医療センター」は、約5年前より本格的な工事の準備を開始致しました。今後の当法人のカトリックの理念に基づく組織運営について議論を行い、ハード部門の設計、ソフト部門の修正、変更、改革を行いました。種々の部門、分野について貴会の方々のご助言、ご指導により今回の竣工に到っております。特に、私どもが計画を検討する際に参考にさせて頂きました「ソウル聖母病院」の建築計画、建築工事及び竣工後の運営は、私どもの計画策定に際し確固たる決断の要因となりました。しかしながら、建築工事期間中に日本は歴史上経験が無いような巨大な地震、津波の大震災、またその後の原子力発電所の爆発、放射能汚染の状況下におかれ、私どもの建築工事の一時的な中断、延期も想定されましたが、貴協会の皆様方のお祈り、ご支援、ご協力により被災地への職員の長期の派遣を実施した結果、関係機関よりの建築工事への一層の協力、ご支援、さらには職員の団結力が強化される結果となり現在に至っています。

終りになりますが、今後日本は急速な少子、高齢、人口減少社会に移行致します。当法人聖マリア病院が診療活動を行っている地域においても同様な現象が急激に生じてまいります。また、予測が困難な若年層の大都市への志向は、医療に関しても影響を受けています。特に、医師、看護師等医療職での大都市医療機関への就職希望により、日本国内の医療職の地域偏在が生じています。また、国民の最大の関心事である社会保障制度問題は、政治問題となり明るい展望が描けておりません。

今後も私どもは、変化する国際政治、経済の中で、また日本の政治、経済の中で、さらには当法人の地域の中でカトリックの理念に基づく医療活動を行って行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今後とも貴協会よりのご支援、ご協力、ご指導、お祈りをお願い申し上げますとともに、現在までの皆様方のご支援、ご協力、ご指導、お祈りに深く感謝申し上げ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神に感謝